

# 國際 反核 및 産業 反對活動

本稿는 지난 3월21일 美國原子力學會(ANS) 韓國支部 제37차 月例朝餐會에서 「International Anti-Nuclear and Anti-Industry Activities」 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한 내용이다.



Otto H. Wildgruber

〈國際原子力機構(IAEA) PA專門家〉

처음 미국원자력학회(ANS) 한국지부로 부터 “국제 반핵 및 산업 반대활동”에 관한 강연을 요청받았을때 우선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빈약하여 체계적인 내용을 발표할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 환경보호라는 명제는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활동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모색 하더라도 환경주의자들은 그것을 이치에 맞지 않고, 보수적이며, 지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긴박한 필요성을 고려치 않는 것으로 비난 하는 것이 현실이다.

•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단체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반핵·반산업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므로 걸로 나타나 있는 각종 논쟁의 내용, 또는 각 단체의 주장과 성격 등에 대한 모든 측면을 자세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논쟁의 내용중 대부분이 미래사회에 대한 것이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어떤 단정적인 논쟁을 제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 산업계야말로 지구파괴의 주범이라고 확일

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산업이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핵심요소가 아님은 분명한 일이다.

• 反産業활동, 특히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활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박한다는 것은 편향적인 시각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밖에도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이 더 있지만, 이상의 몇가지만으로도 “국제 反核·反産業 활동”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제에 대한 강연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수락했습니다. 모든 판단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데에 중점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反核과 反産業측의 주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참고자료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언론매

체를 통해 발견하기 어려웠던 反核·反産業의 면모나 활동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러한 명분있는 환경운동을 비난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 基本概念

우선 「후기산업주의」(Post-industrialism)와 「후기물질주의」(Post-materialism) 문화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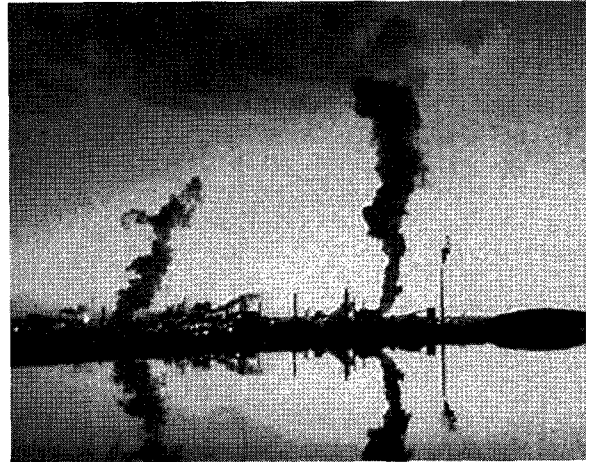
“생물권적 윤리를 향하여”(Towards a Biospheric Ethic)라는 논문은 反産業운동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논문은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활동보다 더 비윤리적인 사업은 없다. 그 사업이란 生物圈으로 부터 技術圈으로 체계적인 대체를 수반하는 경제적 진보를 말한다. 그러한 진보는 생물세계의 파괴, 나아가 파멸까지도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홍수, 한발, 전염병, 이밖에도 여러가지 거대한 中斷현상 같은 것은 이러한 파괴의 증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들은 우리 인간이 몰두하고 있는 비윤리적 경제정책의 대가이다.

자연적인 進歩와 進化에 거슬리는 여러가지 中斷현상, 그것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일방적인 경제정책을 포기하는 것 뿐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무책임하게 파괴해온 자연계를 가능한 한도까지 복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적어도 몇십년 이상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원래의 길로 돌아가서 生物圈의 윤리를 다시 한번 채택하는 방법밖에 없다.”

“길, 生態學的 세계관”(The Way : An Ecological World-View)이라는 논문은 생태학적 개념에 대한 보다 깊숙한 내면을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은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태학은 세계를 단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관적이고도 감성적인 방법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생태학은 神秘主義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變型할 대상이 아니다. 또 이용하기만 하는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경이와 두려움,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세상의 일부까지도 마음속에 간직하여 사랑하고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보다는 덜 이상적인 접근방법이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이라는 논문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세계에서 경제적 및 기술적 영향력을 지구의 궁극적인 파괴자라고 까지는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 또한 오염원이나 오염물질, 그리고 오염원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구별도 하지 않은채 현대문명, 현대경제, 현대기술에 의한 환경오염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논문은 1989년 12월에 간행된 “브룬트란트 뉴스”(Brundtland Bulletin)입니다. 이 책자에서는 소위 비정부조직(NGO)의 역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정부조직이 펼치고 있는 개혁적인 운동, 다른 단체와의 공동협력 서비스업무, 일반인에 대한 의식화 활동은 두드러질 정도로 증대하고 있으므로 그 규모와 내막을 단순히 계량적으로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NGO가 국제적, 체제적, 그리고 심지어는 각국의 정부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그러한 증대는 NGO의 선구자적 사명감에 기인하고 있다고 추측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NGO활동에 대한 이상의 서술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은 무시되어 있으며, 다만 양적 측면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찾아서”(Shopping for a Better World)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책자의 발행부수 정도일뿐, 그 책자의 질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소책자에는 예를 들어 世界資源協會, 世界監視協會(World Watch Institute)같은 매우 편향적인 기관들의 寄稿만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한 질적인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로서는 “마나구아 선언”(The Managua Declaration)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은 “우리는 경제학자적인, 또 소비지향적인 기준에 의해 마련된 어떤 정책이든지 이를 무책임한 것으로 간주하여否認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현 국제경제체제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는 주로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구(IMF)와 같은 다국적 금융재정기관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더욱 넓어져가고 있음을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야말로 이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불과 몇십년만에 개발도상국에서 공업국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Managua선언은 편견을 지닌 것 입니다. 그런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선언문 내용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라늄채광, 원자력발전, 그리고 핵무기 생산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원자력활동을 반대한다. 원자력활동은 지구의 미래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던져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심각한 저해요인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원자력활동은 우라늄광산의 침전물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핵분열기술의 산물에 따른 먹이사슬, 또 토양이나 공기, 수질 등의 오염과 함께 사는 전세계 인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원자력이 지구온실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을 강력히 단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Greenline”이라는 책자에 실린 최근 보고서 보면 反産業 녹색운동이 얼마나 자신들의 생각에만 집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日本을 가르켜 “산업적 살인기계의 심장”이라고 까지 불렀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녹색운동의 장기적 목표는 본질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현재의 경제·정치적 체제를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의 와해를 통해 지역화 경제로 변천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反産業운동이 어느 정도나 현 산업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Ecologist지에 실린 “소비풍조? 녹색소비주의의 한도”(Consuming Fashions? The Limit of Green Consumerism)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녹색운동의 기본개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녹색 소비자 지침은 규모가 매우 축소된 사회에서만 적절해진다. 이는 정치권력에 의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 오늘날 Sustainability라는 단어가 심지어 정부의 공식보고서 같은데에도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이 단어는 심지어 핵융합, 대규모 풍력발전용 터빈, 태양발전용 탑, 거대한 댐, 식품조사(食品照射), 재합성유전공학과 같은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별히 관련이 없는 기술의 논쟁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反産業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산업계가 환경운동, 또는 녹색운동에 기여함으로써 반산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여 여러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반산업집단의 산업계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예가 다국적 거대기업인 Shell

회사의 경우입니다. Shell은 악명 높은 유기염소살충제인 Aldrin과 Dieldrin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운동과 다른 환경운동조직을 후원해 왔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후원한다고 해도 녹색단체들의 반산업운동을 완화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환경운동, 녹색주장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세계의 생태정치학”(Ecopolitics in the Global)이라는 논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비정부기구」, 즉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중에 NGO라는 용어가 상당히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NGO의 내용에 대하여 좀더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非政府組織(NGO)

넓은 뜻으로 해석하면 NGO란 정부의 공식 조직과 연관되지 않은 모든 조직을 뜻합니다. 이런 조직중에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온 것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자연보호단체
- 노동조합
- 산업·경제단체
- 스포츠연맹
- 문화예술단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더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면 정부나 정부기관이 설립하지 않은 모든 사회단체, 조합, 클럽같은 것을 통틀어 NG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까지도 비정부조직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Ecopolitics in the Global” 문서에서 NGO에 관하여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재야 환경주의자들은 이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일반산업계와 정당이 활용하고 있는 홍보정책, 또는 로비전략을 그대로 인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환경관계 NGO들은 자체 연구활동도 수행하고 있고, 로비활동,

대중교육, 항의활동 같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키게 되었다. 이들의 대언론 영향력은 일반 대중의 인식뿐만 아니라 정치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NGO중 가장 규모가 큰 Greenpeace는 1972년 처음 캐나다에서 생긴 작은 단체였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24개국, 심지어는 남극에 까지도 지부를 두고 있다.

대지의 친구 (Friends of the Earth) 역시 1972년에 설립된 조직이다. 지금은 33개국에 같은 이름의 조직을 갖고 있다.

각국의 환경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은 주로 국내 환경문제이다. 그러나 국제적 비정부조직은 지구적 문제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NGO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탄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NGO일수록 국제적 NGO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나이로비 환경연락센터에는 약 1천개 비정부조직이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조직이다. 이들 환경조직은 대부분 지난 15년동안에 생긴 것들이다. 선진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비공식 NGO가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 이들 역시 정부의 유독제품 생산시설을 반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련의 가장 오래된 비정부조직인 숲소련자연보호연맹(All-Union Society for the Preservation of Nature)은 바 이칼호의 보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소련에서도 요즘 환경단체가 많이 생겨났다. 특히 대학에서 활발하다. 최근 생겨난 단체로는 소련 Greenpeace이다. 1988년에 국제 Greenpeace는 이동연구실을 발틱해연안 7개국에 3개월간 파견한 바 있다. 발틱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동서 협동활동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유럽의 언론은 이 활동을 대대적으로 소개한바 있다. 폴란드에서도 환경단체가 최근들어서 상당히 활발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에 압력을 넣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NGO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며, 또 신생 NGO가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NGO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는 약 7만5천개의 비정부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대체로 한가지 이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약 1천개의 NGO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것저것 여러가지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정부조직은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있는 사회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NGO는 어떤 특정문제에 집중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국제적 관심사항중에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촉진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논쟁꺼리를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세밀히 추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정책결정, 산업계의 활동과 일반대중의 여론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태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NGO의 세계는 복잡하여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NGO는 간혹 서로 상충되는 관심사항, 인식, 태도, 정책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수천개의 조직—그것이 국내조직이든 국제조직이든, 또 적은 규모이든 대규모이든, 또 오래 전부터 활동해 오던 단체이든 최근에 생긴 단체이든, 이들은 서로서로 연락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현안문제가 무엇이든지 즉각 서로 정보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입수를 개인접촉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정체는 거미집처럼 얽혀 있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NGO의 성격과 그들의 정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각 산재해 있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연구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 NGO대표들과 직접 접촉해야 한다는 위험성까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NGO를 알기 위하여는 과학적이고도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NGO를 파악한다는 것은 대응논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대중의 이해증진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NGO가 내놓는 각종 간행물, NGO의 캠페인, 논리, 다른 조직과의 유대관계, 직접적인 활동, 나아가 NGO의 배경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NGO가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확대시킬 수 있는 미래 논제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일반대중의 관심향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NGO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강력한지는 금년 4월, “지구의 날”(Earth Day) 행사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NGO들은 “지구의 날” 행사를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정부, 산업계, 사회단체의 인사까지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새로 NGO가 생겨날 경우 그 조직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마는, 그 영향력을 갖기 위해 이용된 수단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NGO현상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NGO는 생태학을 제일의 가치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NGO 성공의 비결임에는 분명합니다. NGO들은 산업계 이외의 지식인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환경문제를 오늘날 세계와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 만드는데 성공하고 있습

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성공하자, 다음으로는 대중 전체를 의사결정, 정책결정에 무제한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결코 의사결정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전체 대중의 대표자라고 내세워 소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하여 성공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들은 기성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나, 그들의 간섭으로 인하여 초래된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NGO들은 어떤 분야이든지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야겠다는 분야가 있으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참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노력으로 성공한 예가 많습니다. 오늘날 아마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생명공학의 혜택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이 아니다. 산업계와 과학자 일부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생명공학의 미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와 대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에 대하여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산업계나 정부당국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하여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일 생명공학이라는 단어 대신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거부하겠습니까? 만일 생명공학이라는 말 대신에 새로운 제약(製藥)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그 문장에 원자력기술을 대신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반산업조직에 의해 세뇌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여 다음

과 같은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으며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쪽 눈만 가진 진짜 전문가들 몇명이 있다. 이들은 사실에 대한 어떤 개념을 볼 수 없다. 사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수많은 소경들은 이와는 반대로 진실된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새로운 NGO가 성공할 수 있었던 안건은 의사결정과정에 일반대중을 참여시켰던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반면 산업계는 일반대중의 참여가 어떻게하면 사리에 맞고 가능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방안을 아직 개발해 내지 못했습니다. 산업계는 일반대중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아직까지도 기술적, 경제적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일반대중에게 과다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일 뿐 그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산업계의 접근방법이 성공하지 못했음은 노벨상 수상자인 Linns Paulig가 자기 분야에서는 훌륭한 전문가이지만 자신이 모르는 분야인 원자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예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짧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대중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이란 것이 반산업조직 또는 NGO의 부추김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인류의 장래에 관하여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에 일반대중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참여토록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생 NGO들은 “비정부조직과 재야조직의 1987년도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 연차대회에 즈음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무조건 전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토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일반대중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어려울 것이므로 그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NGO의 주장을 계속 살펴보면 그들의 목적

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NGO는 세계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 국가경제계획, 구조적 개선계획 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NGO는 NGO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세계은행과 다국적 개발은행(MDB)은 일반대중, 또는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재야NGO는 사업현장에 근접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기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은행은 이사회를 포함한 은행의 모든 집회에 NGO대표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한다. 세계은행은 또한 생태학자, 인류학자, 사회과학자들 간부직원으로 채용하여 세계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의 환경 및 사회·문화적 영향을 평가·검토·감시토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세계은행에 대한 NGO의 주장입니다.

NGO가 세계은행과 같은 단체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정보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은 “학습서 : 우리가 해야 할 일 - 독극물에 공격적으로 대항하는 '90년대의 일반 서민대중”이란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는 힘이다. 그러나 그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알때에만 힘이 된다.”

이 책자에는 압력단체가 일반산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몇가지 힌트가 적혀있습니다. 압력단체들은 무조건 산업체를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NGO의 압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힌트는 “유럽생활양식의 특허화”(Patenting Life Forms in Europe)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활양식의 특허화는 지난 몇년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다음에 있어서 특허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식물 및 동물 육종가
- 농민
- 대중 연구
- 동물 자체

#### - 환경

생활형태의 특허화에 대한 윤리적 반대는 무엇이며, 대안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다른 여러 기술분야와 경제학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변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답변에 있어서는 기술적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NGO의 이와 같은 질문, 또는 유사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영동한 기준에 의한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접근방법이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는 “보다 나은 세상을 찾아서”(Shopping for a Better World)라는 책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산업계를 판단할 기준을 찾아내기 위한 또 다른 접근방법은 “적정이윤”(A Fair Profit)이라는 논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산업계는 논제의 핵심을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를 끄는 논문은 세계환경센터(WEC)간행물인 Network News에 수록된 “환경프로그램으로 1988년도 WEC 금메달을 수상한 영국석유회사”라는 것입니다. 영국석유회사(BP)는 NGO에게 자금지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접근방법이었던지는 “누가 누구에게 저금하는가?”(Who Banks with Whom)라는 논문에 가장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BP회사가 칭찬받을 만한 회사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NGO에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접근방법이 성공할 수 없는지는 IOCU(국제소비자연맹) 논문인 “전세계 소비자에게 고함”(Giving a Voice to the World Consumers)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계에 대하여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일이야말로 NGO가 존재할 수 있는 근본입니다. 이런 내용은 “소비자교육”(Consumer Educa-

tor)지 '89년 8월호에 실린 “기업이 후원하는 교육자료의 편향성”(Business Sponsored Education Material is Biased)이란 논문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 新生 NGO의 위력

새로운 운동이 위력을 갖는데에는 그럴만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몇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산계급이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희생자라는 마르크스주의이론이 점점더 잘못된 개념이라고 판명됨에 따라 무산계급은 자연과 환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옛 이론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식인들로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환경주의에 쉽게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방향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 국제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때로는 영향을 미치는 기술들은 주제가 변하더라도 곤란을 겪지 않습니다. 몇몇 단체는 국제조직에 막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써 “전세계 소지자에게 고향”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연맹들의 국제조직을 들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예는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의 초국가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제네바 청문회”를 들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정치변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압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견해가 그 청문회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 비록 특정한 문제에 대한 NGO들의 입장이 각기 다른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서로 특별한 정보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산업계내에서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계 상호간의 경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산업계가 NGO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는 NGO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어떠한 공

헌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계는 NGO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 때문에 많은 경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 대중은 NGO사업에 동조함으로써 산업계가 사용하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 몇가지 特殊戰術

전체 캠페인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수행되는가는 “단맛, 신맛”이라고 부르는 Tate and Lyle제당회사에 대한 반대캠페인이 매우 좋은 예입니다. 반대운동측은 설탕이 건강에 해롭다는 측면만을 교묘하게 부각시켜 일반대중을 선동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예는 양조업체를 반대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반대운동측은 “음주는 곧 사망”이라는 제목아래 “공동책임부담”을 내세웠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은 다음 두가지의 일반적인 접근방법입니다.

① 오염물질의 한계치를 과학적 유해성에 대한 한계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축소시킨 것.

② 전리방사선을 포함한 이른바 발암물질의 한계치를 0으로 축소시킨 것. 그들은 발암물질의 확률적 영향을 토대로 이러한 물질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암이 유발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과학계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그러한 가설의 무서운 영향을 미리부터 제대로 인식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가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주장이 다른 학문분야에서 얻은 지식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공학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열계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칙으로도 초전도성이라는 현상을 결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학의 법칙들이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법칙들을 원자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량의 중금속이 인체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미량의 중금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량의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지만 미량이면 백신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량의 노출량에서 발견된 결과를 극미량의 노출에 적용시킨 그러한 가설을 무효화하는 예를 얼마든지 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산업계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후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결과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부정적인 결과만을 긍정하려는 과학계 일부의 접근방법을 불식키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여러가지 긍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외면한채 오직 부정적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연구하는 것은 진정한 과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한 사항이 있습니다. NGO들은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는데에 있어서 어떤 별도의 규칙이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칙이나 원칙의 한계를 정의하는 일은 매우 모호하여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서로 상반되는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원칙에서 용납되고, 또 어떤 것은 용납이 안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켜질 수 없다는 전제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식품조사(食品照射)입니다. 과학계의 거의 모든 단체는 일정한 범위내의 식품조사는 일반대중에게 오히려 득이 된다는 강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야 반대단체들이 정한 규칙 때문에 IAEA, FAO, 그리고 WHO 같은 국제기구가 정한 결정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식품조사에 대하여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아직도 대중사이에서 논쟁의 원인으로 남아있는 실정

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대부분 국제조직이 맹목적인 반대론자들을 그 국제조직의 옵서버나 자문위원의 명단에서 제외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식품조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비자, 특히 주부들의 압력이 강해서인지, 또는 NGO의 힘이 강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희망적인 징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독 주간지 "Der Spiegel"의 한 기자는 "독일인의 공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기자는 NGO가 특기로 삼고있는 유언비어 전술의 일부를 폭로하였습니다.

-한 화학자는 "나약한 꿈-생태주의"라는 책에서 녹색 반이성주의를 강한 논조로 비판하였습니다.

-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수출하는 것이 도덕적인가?" 와 같은 논문은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한 것입니다.

이 정도 언급했으면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結 論

신홍 녹색주의의 위력을 과소평가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NGO를 같은 범주에 넣고 생각한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비록 많은 NGO들이 다양한 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 중의 일부는 실제로 진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아직도 합리적인 접근방법에 대하여 개방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토의를 할 수 있는 NGO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협상을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향력을 얻는데에만 관심이 있는 NGO들을 찾아내는 일 또한 필요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반대중을 위하여 우리는 세력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는 NGO들을 분류하여 그들을 아예 무시하거나, 필요하다면 싸우기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